운명설계소

홍길동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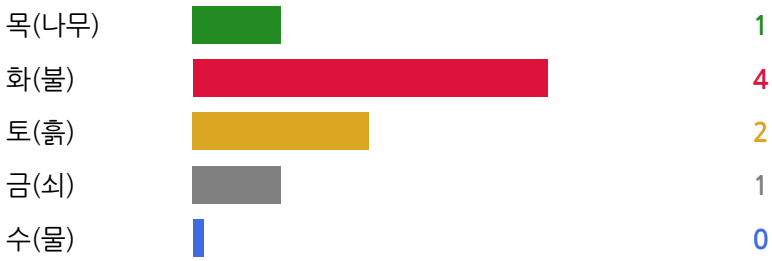
사주팔자 정밀 분석 리포트

생년월일	1977년 7월 7일 진시 (07:30~09:29)
성별	남성
나를 뜻하는 글자	을(작은 나무)
내 힘의 세기	극신약 — 사람·환경에 많이 흔들리는 편 — 곁을 잘 고르면 힘
발행일	2026년 11월 12일

사주팔자 — 타고난 여덟 글자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나)	태어난 시각
정(촛불/달빛)	병(태양/큰 불)	을(작은 나무)	경(원석/큰 칼)
사(뱀)	오(말)	축(소)	진(용)

다섯 기운의 개수 (오행)



10년마다 바뀌는 큰 흐름 (대운)

시작 나이	시작 연도	그 10년의 글자	더 들어오는 기운
10세	1987년	을사(작은 나무·뱀)	목(나무)·화(불)
20세	1997년	갑진(큰 나무·용)	목(나무)·토(흙)
30세	2007년	계묘(빗물·토끼)	수(물)·목(나무)
40세	2017년	임인(바다·호랑이)	수(물)·목(나무)
50세	2027년	신축(보석·소)	금(쇠)·토(흙)
60세	2037년	경자(원석·쥐)	금(쇠)·수(물)
70세	2047년	기해(논밭·돼지)	토(흙)·수(물)
80세	2057년	무술(큰 산·개)	토(흙)·토(흙)

당신의 사주를 한 문장으로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채우는 자리가 비어 있는 사주입니다

여덟 글자 중 넷이 불입니다. 불은 을목인 홍길동 님이 밖으로 내보내는 기운이라, 만들고 말하고 벌이는 힘이 대단히 큽니다. 그 힘이 그대로 흙, 곧 재물로 이어지는 배치이기도 합니다. 버는 힘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이 겉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물은 쉬는 것, 배우는 것, 기대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통로는 넷인데 받아들이는 통로가 비어 있으니, 결과는 나오는데 사람이 마르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과제는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리포트에 담긴 것

번호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01 여덟 글자를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02 무엇이 세고 무엇이 옅은지

03 이 사주가 반기는 기운

04 지금 먼저 보셔야 할 것

05 금전운 상세

06 직업운 상세

07 연애운 상세

08 결혼운 상세

09 건강운 상세

10 인간관계와 가족운

11 10년 단위 흐름

12 올해 운세

13 실행 계획

표지의 '10년마다 바뀌는 큰 흐름' 표에 적힌 나이와 연도는 계산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그 무렵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떠올려 보시면, 이 리포트를 얼마나 믿을지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의 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덟 글자 표 — 위 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아래 줄은 속마음과 생활의 바탕입니다. '태어난 날' 칸의 위 글자가 나 자신이고, 그 아래 글자는 배우자 자리이자 집에서 편하게 쉬는 방식입니다. 칸 색은 그 글자의 기운입니다(초록 나무 · 빨강 불 · 노랑 흙 · 회색 쇠 · 파랑 물).

내 힘의 세기 — 극신약입니다. 여덟 글자 중 1개가 나를 돕습니다. 주변 기운이 훨씬 커서 사람과 환경에 많이 흔들리는 편입니다. 곁에 둘 사람과 머물 곳을 잘 고르는 것이 곧 힘이 됩니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힘을 쓰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섯 기운 — 개수는 점수가 아닙니다. 많은 기운은 잘 쓰는 힘이자 넘치기 쉬운 쪽이고, 0개인 기운은 타고나기 약한 쪽이라 생활 습관으로 채웁니다.
· 불 4개 — 불은 드러내고 표현하는 힘입니다. 4개로 많아서 이 힘이 강점이 됩니다. 다만 넘치면 마음이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식거나, 말이 생각보다 앞서기 쉽습니다.

· 물 0개 — 물은 쉬고 돌아보며 생각을 고르는 힘입니다. 하나도 없어서 이 힘이 약하게 나옵니다 — 지쳐도 쉬는 법을 잘 몰라 회복이 늦기 쉽습니다. 나쁜 사주라는 뜻은 아니고, 하루 끝에 생각을 정리하는 짧은 시간을 두면 채워집니다.

여덟 글자 안에서 부딪치고 묶이는 자리 — 타고난 글자끼리 서로 밀거나 당기는 자리입니다.
· 「나 자신」과 「자녀·아랫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자리가 서로 묶입니다 (을(나무)·경(쇠)). 그 둘이 서로 끌려 쉽게 이어집니다. 정이 붙고 도움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다만 한쪽에 묶여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장면도 같이 나옵니다. 붙은 두 자리라 생활에서 자주 느끼는 편입니다.

10년마다 바뀌는 큰 흐름 — 한 줄이 10년입니다. '더 들어오는 기운' 은 그 10년 동안 곁에 더 많아지는 기운입니다. 그 10년이 나에게 어떤 때인지는 본문 '10년 단위 흐름' 장에서 풀어 드립니다.

계산 — 여덟 글자, 오행 개수, 대운이 바뀌는 나이와 연도는 절기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서머타임(1948~1988), 절기 경계, 한국 표준시 30분 보정, 야자시를 모두 반영했고 20개 검증 케이스로 매번 자동 확인합니다.
해석 — 그 글자로 성격과 시기를 읽는 부분은 명리학의 전통적 관점이며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결정은 직접 하십시오.

1. 여덟 글자를 하나씩 읽어드립니다

태어난 해, 정사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에 비유하는 불입니다. 큰불이 아니라 안에서 오래 타는 불이에요. 그 아래 사년은 한여름으로 들어서는 자리고, 역시 불입니다. 태어난 해 두 글자가 모두 불이라는 건, 홍길동 님이 세상에 나온 그 배경 자체가 뜨거웠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해는 뿌리와 초년,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를 봅니다. 조용한 집보다는 말이 오가고 움직임이 많은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어난 달, 병오

병화는 태양입니다. 그 아래 오화도 불이고, 한여름 정오에 해당합니다. 태어난 달은 사주에서 가장 힘이 센 자리인데, 그 자리가 통째로 불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글자 중 네 개가 전부 불이에요. 이런 배치를 두고 고전에서는 화기가 극도로 왕성하다고 봅니다.

태어난 날, 을축

을목은 홍길동 님 자신입니다. 큰 나무인 갑목과 달리 을목은 덩굴이나 화초에 비유합니다.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혼자 서 있기보다 무언가를 감고 올라가는 성질입니다. 그 아래 축토는 젖은 흙이고, 사주에서는 재물을 뜻하는 자리로 봅니다.

태어난 시, 경진

경금은 단단한 쇠입니다. 을목과 경금은 만나면 서로 붙는 관계로 보는데, 이걸 을경합이라고 합니다. 홍길동 님의 여덟 글자에서 유일한 쇠가 하필 자기 자신과 딱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쇠는 직책과 책임을 뜻하는 자리예요. 아래 진토는 또 재물 자리고, 동시에 물을 담아두는 창고로 봅니다.

여덟 글자를 한 장면으로

한여름 정오에, 물기 없는 흙 위에, 여린 덩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옆에는 쇠붙이가 하나 붙어 있고요. 이 장면이 홍길동 님 사주의 첫인상입니다. 뜨겁고, 밝고, 그런데 마실 물이 안 보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하루 물을 몇 잔 마셨는지 세어보세요. 사주의 물과 실제 물은 다르지만, 이 판을 가진 분들은 대개 목마른 줄 모르고 지냅니다.

2. 이번 달 안에 아무 일정도 없는 반나절을 달력에 미리 적어두세요. 비워두면 반드시 다른 일이 들어옵니다.

3. 올해 안에 배우거나 읽는 시간을 정기 일정으로 만들어보세요. 채우는 일은 이 판에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2. 무엇이 세고 무엇이 옅은지

세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무 하나, 불 넷, 흙 둘, 쇠 하나, 물 영. 여덟 글자 중 절반이 불입니다. 그리고 물이 겉으로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불 넷이 하는 일

사주에서 불은 을목인 홍길동 님이 밖으로 내보내는 기운입니다. 말,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것, 표현하는 것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넷이라는 건 내보내는 힘이 대단히 크다는 뜻이에요. 회의에서 먼저 입을 여는 쪽, 남들이 아직 정리 중일 때 이미 안을 내놓는 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지는 성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불은 을목의 기운을 가져다 씁니다. 즉 내보낼수록 본인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넷이나 되니 줄어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물이 없다는 것

물은 을목을 살리는 기운입니다. 쉬는 것, 배우는 것, 받는 것, 기대는 것이 전부 물입니다. 이게 겉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일은 계속 벌어지고 결과도 나오는데, 정작 본인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쉬는 게 서툴고,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게으르거나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받는 자리가 원래 비어 있는 판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축토와 진토 속에 물이 잠겨 있어요. 고전에서는 진토를 물의 창고로 봅니다. 겉에 없을 뿐 땅속에는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저절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야 나옵니다.

결론부터

고전 기준으로 이 판은 극신약에 해당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다 짊어지는 방식보다 나눠 지는 방식이 훨씬 잘 맞는 판이라는 뜻입니다.

흙 둘과 쇠 하나가 하는 일

흙은 을목에게 재물이고, 남자 사주에서는 배우자 자리로도 봅니다. 축토와 진토 둘 다 발밑에 깔려 있어요. 뜬 자리가 아니라 밑에 있다는 건 생활에 뿌리내린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는 뜻입니다.

쇠는 하나뿐인데 경금이라 단단한 쇠고, 하필 을목과 붙어 있습니다. 직책과 책임을 뜻하는 자리가 자기 자신과 딱 붙은 모양이라, 맡은 일과 나를 분리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 둘을 합쳐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도 짊어지는 것도 전부 홍길동 님 한 사람에게 걸려 있는 배치예요. 도와주는 나무도 없고 채워주는 물도 없으니, 이 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결국 내가 해야지가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하려던 일 중 하나를 남에게 넘겨보세요. 넘길 만한 게 없다고 느껴지면 그 느낌 자체가 이 판의 증상입니다.

2. 이번 달 안에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한 번만 해보세요. 부탁은 이 판에서 훈련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3. 올해 안에 혼자 하던 일 중 하나를 둘이 하는 구조로 바꿔두세요.

3. 이 사주가 반기는 기운

반기는 것은 물, 그리고 나무

불이 넷인 판이 목말라 있으니 반기는 첫째는 물입니다. 물은 을목을 직접 살립니다. 쉬는 시간, 배우는 시간, 기대는 사람, 받는 자리가 전부 물의 자리예요.

둘째는 나무입니다. 홍길동 님과 같은 편이 되어주는 기운인데, 여덟 글자 안에 자기 자신 말고는 없습니다. 같이 일할 사람, 같은 처지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이 자리입니다. 이런 판은 좋은 동료 한 사람이 조언 열 개보다 낫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

불과 흙과 쇠는 이미 충분합니다. 더 들어오면 기운이 더 빠집니다. 여기서 불은 일을 더 벌이는 것, 흙은 벌이는 규모를 키우는 것, 쇠는 책임과 직함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읽습니다.

그러니 새 기회가 왔을 때 판단 기준은 하나로 두시면 됩니다. 이 일이 나를 더 쓰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채워주는가. 전자면 이미 넘칩니다.

실제 생활에서 물을 만드는 법

사주의 물을 실제로 늘릴 수는 없지만, 물이 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판에서는 세 가지가 물 노릇을 합니다.

첫째는 배우는 자리입니다. 강의든 책이든 자격이든, 받아들이는 활동은 전부 물입니다.

둘째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쉼입니다. 남는 시간에 쉬는 게 아니라 일정에 박아두는 쉼이어야 합니다. 이 판은 빈 시간이 생기면 반드시 일이 들어옵니다.

셋째는 기대도 되는 사람 한 명입니다. 여럿일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이 판은 달라집니다.

이미 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서른 무렵부터 마흔아홉인 지금까지, 홍길동 님이 지나온 큰 흐름에는 물과 나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버텨온 힘의 상당 부분은 타고난 판이 아니라 그 흐름이 받쳐준 몫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결정할 일이 있다면 나를 쓰는 일인지 채우는 일인지로만 갈라보세요.

2. 이번 달 안에 배우는 자리 하나를 등록하세요. 내용보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자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올해 안에 기대도 되는 사람 한 명에게 실제로 기대보세요. 관계는 써야 유지됩니다.

4. 지금 먼저 보셔야 할 것

스무 해 동안 받쳐주던 것이 바뀝니다

사주에는 타고난 여덟 글자 말고 십 년마다 갈아입는 큰 흐름이 따로 있습니다. 홍길동 님의 흐름은 서른 살에 계묘로 들어갔고, 마흔 살에 임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수와 임수는 둘 다 물이고, 묘목과 인목은 둘 다 나무입니다.

앞에서 이 판이 반기는 것이 물과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른부터 지금까지 스무 해 동안, 타고난 판에 없던 그 두 가지가 흐름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쉰 살에 신축으로 바뀝니다. 신금은 쇠고 축토는 흙입니다. 물도 나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는 무리를 해도 회복이 됐을 겁니다. 밤을 새우고도 다음 날 굴러갔고, 일을 벌여도 어떻게든 수습이 됐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게 본인 체력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흐름이 물을 대주고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신축으로 넘어가면 쇠와 흙이 강해집니다. 쇠는 책임과 직함이고 흙은 벌여놓은 규모입니다. 둘 다 을목의 기운을 가져다 쓰는 쪽이에요. 받는 게 줄고 나가는 게 느는 배치입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전환은 누구에게나 오고,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다만 준비 없이 맞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예전만큼 안 되고, 예전 방식이 왜 안 통하는지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그러면 대개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대응하는데, 이 판에서 더 열심히 하는 건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이미 신호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큰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갈리지 않습니다. 바뀌기 두세 해 전부터 조금씩 표가 나는 편이에요. 홍길동 님 경우라면 이런 장면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풀리던 피로가 일주일씩 가는 것. 예전 방식대로 밀어붙였는데 예전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예전처럼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맡은 게 늘었는데 늘어난 만큼 보람은 안 느는 것.

이런 게 짚이신다면 나이 탓이나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받침이 얇아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신호로 읽으시면 됩니다.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대응이 맞아떨어집니다.

이 판이 전환기에 흔히 하는 실수

불이 넷인 판은 문제가 생기면 더 만들어서 해결하려 합니다. 일이 안 풀리면 새 일을 하나 더 벌이고, 사람이 없으면 혼자 더 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잠을 줄입니다.

이 방법이 지금까지 통했던 건 흐름이 물을 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침이 바뀐 뒤에 같은 방법을 쓰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기 쉽습니다. 더 해서 메우는 게 아니라 덜 해서 남기는 쪽이 이 구간의 답에 가깝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 판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덜 하는 게 게으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의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 구조로 만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일정에 박아둔 쉼, 미리 정해둔 상한선, 나눠 진 사람. 이 세 가지가 의지를 대신합니다.

지금 해두면 좋은 세 가지

첫째, 혼자 지고 있는 것의 목록을 만들어보세요. 이 판은 비겁이 없어서 나눠 지는 습관이 원래 없습니다. 흐름이 받쳐줄 때는 그래도 굴러가는데, 받침이 바뀌면 그 목록이 그대로 무게가 됩니다. 지금 나누기 시작해야 나중에 나눌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규모를 늘리는 결정을 서둘러 하지 마세요. 흙은 이미 둘이고 앞으로 더 들어옵니다. 벌여놓은 게 클수록 이 판은 힘듭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더 깊이 쪽이 맞습니다.

셋째, 받는 통로를 지금 만들어두세요. 배우는 자리, 정기적인 쉼, 기대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흐름이 물을 대줄 때는 없어도 티가 안 나지만, 대주지 않을 때는 이게 전부입니다.

한 가지 더

축토와 진토 안에 물이 잠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축 대운의 축토는 그 축토를 다시 건드리는 자리입니다. 고전에서는 창고를 여는 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오래 묻어둔 것을 꺼내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정도로 적어둡니다. 오래전에 접어둔 공부나 자격, 미뤄둔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나쁜 때가 아니라 바뀌는 때입니다. 스무 해 동안 잘 통하던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이 본인 실력이었는지 흐름의 도움이었는지 구분해두시는 게 지금 할 일입니다. 구분이 되면 다음 십 년은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혼자 지고 있는 일을 종이에 다 적어보세요. 개수만 세어도 됩니다.

2. 이번 달 안에 그중 하나를 실제로 넘기거나 줄이세요. 목록만 만들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3. 올해 안에 받는 통로 세 가지를 각각 하나씩 자리 잡아두세요. 내년부터는 이게 버팀목이 됩니다.

5. 금전운 상세

돈 자리는 둘, 그런데 만드는 힘이 넷

사주에서 을목에게 흙은 재물입니다. 홍길동 님 판에는 축토와 진토, 흙이 둘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입니다. 불이 넷인데, 불은 을목이 만들어 내보내는 기운이고 그 불이 흙을 만듭니다. 고전에서는 이 흐름을 식상생재라고 부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그대로 돈이 되는 배치예요. 물려받거나 굴려서 버는 쪽보다, 손과 머리에서 나온 것이 돈이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돈을 버는 힘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판에서 제일 잘 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 남는 느낌이 드는가

불이 넷이라는 건 만드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을목이 그만큼 빠르게 소모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벌이는 되는데 버는 사람이 지칩니다.

그리고 흙은 을목을 눌러 세우는 쪽이 아니라 을목의 힘을 가져가는 쪽입니다. 돈이 늘수록 관리할 것이 늘고, 관리할 것이 늘면 또 기운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판에서는 수입이 늘어도 편해진다는 실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판에 맞는 돈 관리

첫째, 들어온 그날 떼는 방식이 맞습니다. 남는 걸 모으는 방식은 이 판에서 잘 안 남습니다. 벌이가 고르지 않다면 액수가 아니라 비율로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손이 자주 가는 투자보다 손이 안 가는 쪽이 낫습니다. 관리에 시간이 드는 자산은 이 판에서 기운을 또 가져갑니다.

셋째, 규모를 키우는 결정은 한 박자 늦추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흙은 앞으로 더 들어옵니다. 지금 벌여둔 것이 나중에 무게가 되는 배치예요.

한 가지 짚어둘 것

경금이 을목과 붙어 있습니다. 쇠는 직책이고, 이 판에서 돈은 대개 그 직책을 통해 들어오는 모양으로 봅니다. 직업과 수입이 한 몸에 가깝다는 뜻이라, 일을 놓으면 수입도 같이 멈추기 쉽습니다.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줄기를 따로 하나 만들어두시면 이 판의 약한 곳이 메워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통장에서 나가는 자동이체 목록을 한 번 훑으세요. 관리에 손이 가는 항목이 몇 개인지만 세어보시면 됩니다.
2. 이번 달 안에 들어온 그날 떼는 비율을 정하고 통장을 하나 더 만드세요.
3. 올해 안에 일을 쉬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줄기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규모는 작아도 됩니다.

6. 직업운 상세

쇠 하나가 나와 붙어 있습니다

경금은 홍길동 님 여덟 글자에서 유일한 쇠고, 하필 자기 자신인 을목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배치를 을경합이라 부릅니다.

쇠는 직책, 규율, 맡은 책임을 뜻합니다. 그게 하나뿐인데 자기와 붙어 있다는 건, 일과 자기 자신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일이 잘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일이 흔들리면 나까지 흔들리는 구조예요. 직업이 곧 정체성인 쪽입니다.

이건 강점이기도 합니다. 맡은 일을 대충 하는 법이 없고, 그래서 오래 신뢰를 얻습니다. 다만 일이 없는 상태를 견디기가 유독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맞는가

불이 넷이니 만들어 내보내는 일이 맞습니다. 기획, 설계, 가르치는 일, 말로 설명하는 일, 없던 것을 만들어 내놓는 일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정해진 것을 지키기만 하는 자리, 변화가 거의 없는 자리는 이 판에서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규모로 보면 큰 조직의 한 부품보다 자기 이름이 붙는 자리가 낫습니다. 다만 혼자 다 하는 구조는 권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하나뿐이라 같이 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심할 지점

불이 넷이면 시작이 쉽습니다.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니 벌이는 것도 빠릅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붙들어줄 물과 나무가 얇아서, 마무리 단계에서 힘이 빠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배치 문제입니다. 그러니 대책도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세우시면 됩니다. 끝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것, 마감을 남에게 말해두는 것,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과 짝을 이루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판에서 특히 잘 듣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쉰 살부터 들어오는 흐름에는 쇠가 강해집니다. 책임이 무거워지는 배치예요. 자리가 올라가거나 맡는 범위가 넓어지는 쪽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 자체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판은 받쳐주는 물이 얇으니, 자리를 늘릴 때 반드시 나눠 질 사람을 같이 늘리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는 폭을 넓히는 방식은 이 배치에서 오래 못 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하고 있는 일 중 시작만 해놓고 멈춘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2. 이번 달 안에 그중 하나의 마감일을 정하고 누군가에게 말해두세요.
3. 올해 안에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한 명과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보세요.

7. 연애운 상세

주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남자 사주에서 흙은 재물이면서 동시에 배우자와 이성을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홍길동 님은 그 흙이 둘 있고, 그 흙을 만들어내는 불이 넷입니다.

이 배치는 관계에서 주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표현을 많이 하고, 챙기고, 먼저 움직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빨리 알아채는 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받는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 받는 연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혼자 지쳐버리는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받는 통로가 원래 좁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한가

물과 나무를 가진 사람이 편합니다. 생활 언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받아주는 사람. 홍길동 님이 쏟아내는 말과 계획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들어주는 쪽입니다. 이 판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내보내야 사는 판이라, 들어주는 사람 옆에서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같이 지어주는 사람. 챙김을 받기만 하는 관계보다, 자기 몫을 자기가 지는 사람이 맞습니다. 나무가 하나뿐인 판은 옆에 나무가 있어야 덜 흔들립니다.

조심할 지점

챙기는 걸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습관이 붙기 쉽습니다. 그렇게 유지되는 관계는 홍길동 님이 지칠 때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한 가지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잘해주기 전에 부탁을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판에서 부탁은 애정 표현보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미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스무 해 흐름에는 물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난 관계들은 상대적으로 받는 느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그 몫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받는 통로를 사람에게만 기대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로 따로 만들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부탁 하나를 해보세요. 물 한 잔이라도 됩니다.
2. 이번 달 안에 잘해주는 대신 같이 하는 일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3. 올해 안에 관계에서 지치는 지점이 어디인지 한 번 적어두세요. 반복되는 자리가 보일 겁니다.

8. 결혼운 상세

흙 둘이 뿌리에 붙어 있습니다

축토와 진토는 둘 다 발밑 자리에 있습니다. 태어난 날의 아래와 태어난 시의 아래예요. 남자 사주에서 이 자리의 흙은 배우자와 가정을 보는 자리로 읽습니다.

뜬 자리가 아니라 밑에 깔려 있다는 건, 관계가 겉으로 화려하기보다 생활 쪽에 뿌리를 내리는 모양으로 봅니다. 오래 같이 지내는 쪽, 매일의 살림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기 쉬운 장면

불이 넷이라 말과 계획이 많이 나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점은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조심할 점은 상대가 들어주는 쪽에만 서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은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강합니다. 힘든 걸 말하지 않고 안에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은 배려라고 여기지만, 옆에서는 안 알려준다고 느끼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 어긋남이 이 판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잘 맞는 방식

첫째, 정기적으로 말하는 자리를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하려면 이 판은 이미 늦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말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역할을 나눌 때 홍길동 님이 다 가져오는 배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는 쪽이 다 하면 편해 보이지만, 이 판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소진됩니다.

셋째, 힘든 것을 말하는 문장을 하나 정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판은 도움을 청하는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정해둔 문장이 있으면 그 순간에 말이 나옵니다.

시기에 관하여

쉰 살부터의 흐름은 쇠와 흙이 강해집니다. 책임과 살림이 동시에 무거워지는 배치라, 가정 안에서도 홍길동 님이 지는 몫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미리 나눠두시면 그 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축토와 진토, 두 흙의 결이 다릅니다

축토는 겨울의 젖은 흙이고 진토는 봄의 축축한 흙입니다. 둘 다 물기를 품고 있어요. 불이 넷인 판에서 이 두 글자는 유일하게 열을 식혀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읽습니다. 화려하거나 뜨거운 관계보다, 옆에서 온도를 낮춰주는 사람 쪽이 이 판에는 오래 갑니다. 재미있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집안일 중 혼자 하고 있는 것 하나를 말로 꺼내보세요.
2. 이번 달 안에 아무 일 없을 때 이야기하는 자리를 정기로 잡으세요.
3. 올해 안에 힘들 때 쓸 문장 하나를 정해서 실제로 한 번 써보세요.

9. 건강운 상세

먼저 분명히 해둘 것

사주로 몸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병원이 할 일이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생활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가 아플지 맞히는 글이 아니라, 이 판을 가진 분들이 어떤 리듬으로 살기 쉬운지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판의 리듬

불이 넷이고 물이 겉에 없습니다. 고전에서는 이런 배치를 조열하다고 표현합니다. 생활로 옮기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리듬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흔한 장면이 있습니다. 피곤한 줄 모르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 중간 신호를 잘 못 느낍니다. 물이 없다는 건 몸이 보내는 그만하라는 신호를 받는 감각이 무디다는

뜻으로도 읽거든요. 그래서 참을성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는 참는 게 아니라 못 느끼는 쪽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는 회복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흐름이 물을 대주고 있어서 금방 돌아왔을 겁니다. 그 받침이 얇아지면 같은 무리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무리의 양이 는 게 아니라 회복의 속도가 준 것인데, 이걸 체력이 떨어졌다고만 해석하면 대응이 어긋납니다.

이 판에 맞는 관리

첫째, 쉬는 것을 일정에 넣으세요. 이 판은 남는 시간에 쉬려고 하면 절대 안 쉬어집니다. 빈칸이 생기면 반드시 일이 들어옵니다.

둘째, 신호를 몸에 맡기지 말고 시계에 맡기세요. 피곤할 때 쉬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각에 멈추는 방식이 이 배치에 맞습니다.

셋째, 정기 검진을 거르지 마세요. 느끼는 감각이 무딘 판이라 숫자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건 사주가 아니라 상식의 영역이고, 이 판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쉰 살부터의 흐름은 받쳐주는 쪽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두는 습관이 그때 그대로 자산이 됩니다. 늦게 시작하면 습관이 자리 잡기 전에 부담이 먼저 옵니다.

하루 중 조심할 시간대

태어난 달과 시가 모두 뜨거운 쪽입니다. 이런 판은 오후 한낮에 무리하기 쉽습니다. 몸이 가장 잘 도는 시간이라 그때 일을 몰아치게 되는데, 정작 그 시간이 이 판에서 가장 빨리 마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은 상대적으로 편한 시간대로 봅니다.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한낮보다 그쪽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잠자리에 드는 시각을 정하고 알람을 맞추세요. 일어나는 알람 말고 눕는 알람입니다.
2. 이번 달 안에 정기 검진 일정을 예약하세요.
3. 올해 안에 매주 같은 시각에 반복되는 쉼을 하나 자리 잡으세요.

10. 인간관계와 가족운

같은 편이 없는 판입니다

여덟 글자에서 나무는 홍길동 님 자신 하나뿐입니다. 사주에서 나와 같은 기운은 형제, 동료, 같은 처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게 없다는 건 기댈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지는 구조가 잘 안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짐을 나눌 사람은 없는 것. 관계가 넓어도 깊이 기대는 자리는 비어 있는 것. 본인이 늘 챙기는 쪽에 서 있는 것.

이건 성격 탓이 아닙니다. 불이 넷이라 사람에게 내주는 게 많고, 물이 없어서 받는 게 서툴러서 생기는 배치의 결과로 봅니다.

부모와 윗사람 자리

물은 을목을 살리는 기운이면서 동시에 부모와 윗사람, 배우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 물이 겉에 없습니다.

이걸 부모 복이 없다는 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대는 방식을 배울 기회가 적었던 쪽에 가깝습니다. 일찍부터 알아서 하는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지금의 강점이자 동시에 지금의 피로입니다.

다만 축토와 진토 안에 물이 잠겨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가면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을 잘 안 여는 쪽으로 봅니다.

관계를 바꾸는 한 가지

넓히는 것보다 한 명을 깊게 만드는 편이 이 판에 맞습니다. 나무가 하나뿐인 판은 나무 하나가 옆에 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열 명과 알고 지내는 것보다 한 명에게 실제로 기대는 쪽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판이 필요한 건 보살핌이 아니라 분담입니다.

아랫사람 자리

불은 을목이 내보내는 기운이라 후배나 아랫사람을 뜻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넷이니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이 많이 갑니다.

실제로 아랫사람에게 잘하는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알려주고 챙기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쪽이에요. 다만 여기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주는 쪽으로만 흐르고 받는 게 없습니다.

키운 사람에게 실제로 일을 맡기는 데까지 가셔야 이 자리가 완성됩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맡기지 않으면 이 판은 계속 혼자 일하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세 명 적어보세요. 세 명이 안 나오면 그게 지금 상태입니다.
2. 이번 달 안에 그중 한 명에게 실제로 일 하나를 나눠보세요.
3. 올해 안에 같이 지는 관계 하나를 만들어두세요. 일이든 취미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11. 10년 단위 흐름

홍길동 님의 큰 흐름

십 년마다 갈아입는 흐름을 대운이라 합니다. 홍길동 님은 열 살에 시작해서 십 년 단위로 넘어갑니다.

열 살 을사, 스무 살 갑진, 서른 살 계묘, 마흔 살 임인, 쉰 살 신축, 예순 살 경자.

서른 이전

을사와 갑진에는 나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같은 편이 붙어주는 흐름이라, 사람과 어울리며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로 봅니다. 다만 사화가 불이라 이십 대까지는 여전히 뜨거운 배치였습니다. 많이 하고 많이 소모하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른부터 마흔아홉까지, 물이 들어온 스무 해

서른 살 계묘부터 마흔 살 임인까지, 이십 년 동안 물과 나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타고난 판에 없던 두 가지가 흐름으로 채워진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회복이 빨랐고, 무리를 해도 굴러갔고, 필요할 때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이 흐름의 몫으로 봅니다. 사주에서 없는 것이 흐름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대개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무리가 통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마흔아홉, 그 스무 해의 마지막 자락에 계셔요.

쉰 살부터, 신축

쇠와 흙입니다. 물도 나무도 아닙니다.

책임이 무거워지고 벌여놓은 것의 관리 부담이 커지는 배치로 봅니다. 자리가 올라가거나 맡는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인데, 이 판에는 부담 쪽이 큽니다.

그리고 축토는 홍길동 님 발밑의 축토와 같은 글자입니다. 고전에서는 이런 만남을 묻어둔 것이 건드려지는 자리로 보기도 합니다. 오래 미뤄둔 공부나 자격, 접어둔 관계가 이 시기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정도로 적어둡니다.

예순 이후

경자부터는 자수가 들어옵니다. 다시 물입니다. 흐름이 받쳐주는 쪽으로 돌아오는 구간으로 봅니다.

그러니 쉰부터 예순까지의 십 년이 이 판에서 관리가 가장 필요한 구간입니다. 나쁜 십 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하고 들어가면 확실히 다른 십 년이라는 뜻입니다.

흐름을 읽는 법에 대해

대운은 좋은 십 년과 나쁜 십 년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에 모자란 것이 들어오는 십 년과, 이미 넘치는 것이 더 들어오는 십 년으로 나뉩니다.

홍길동 님 판은 물과 나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묘와 임인이 들어온 스무 해가 편했던 것이고, 쇠와 흙이 들어오는 신축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신축 대운이라도 물이 넘치는 판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대로 반가운 십 년이 됩니다.

그러니 남의 운세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에게 대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가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하는 말은 판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홍길동 님에게 필요한 기준은 하나예요. 이번에 들어오는 기운이 나를 채우는 쪽인가, 쓰는 쪽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지난 이십 년 동안 잘 통했던 방식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2. 이번 달 안에 그중 어떤 것이 실력이고 어떤 것이 흐름의 도움이었는지 갈라보세요.
3. 올해 안에 흐름의 도움에 기대던 부분을 구조로 바꿔두세요. 사람, 습관, 일정 중 하나면 됩니다.

12. 올해 운세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병화와 오화, 둘 다 불입니다. 홍길동 님 타고난 판에 이미 불이 넷인데, 올해 들어오는 두 글자도 불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달이 병오입니다. 올해 간지가 태어난 달의 간지와 똑같습니다. 고전에서는 이런 해를 원래 있던 자리가 한 번 더 강조되는 해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보내는 힘이 한 해 중 가장 커지는 배치입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일이 몰리고, 하고 싶은 것이 늘어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활발하고 잘 풀리는 해로 보이기 쉽습니다.

동시에 소모도 가장 큽니다. 불은 을목의 기운을 가져다 쓰는 자리라, 불이 많은 해는 결과가 나오는 만큼 사람이 마릅니다.

올해 이런 장면이 있으셨다면 이 배치와 맞습니다. 일은 잘되는데 이상하게 지치는 것. 성과가 나왔는데 기쁘지가 않은 것. 쉬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다음 일이 이미 시작된 것.

올해 남은 기간에 권하는 것

벌이는 것보다 정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새로 시작할 것이 눈에 많이 보일 텐데, 이 판에서 올해 새로 벌인 것은 내년에 무게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내년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기간은 다음 십 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시는 게 가장 값집니다. 벌여둔 것을 줄이고, 나눌 사람을 정하고, 받는 통로를 만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더

올해처럼 불이 강한 해에는 말이 앞서기 쉽습니다. 약속을 하는 순간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약속이 전부 짐이 됩니다. 이 판에서 올해 가장 조심할 것 하나를 고르라면 그것입니다. 즉답하지 않는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올해 잘 맞는 일과 안 맞는 일

불이 강한 해라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잘 붙습니다. 알리는 일, 가르치는 일, 만들어 보여주는 일,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올해 그런 기회가 왔다면 잡으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쌓아두는 일, 오래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는 일은 올해 답답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체감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은 결과를 중간에 확인할 수 있게 잘라두시면 훨씬 낫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부탁받은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말고 하루만 미뤄보세요.
2. 이번 달 안에 올해 벌여둔 것 중 하나를 정리하거나 끝내세요.
3.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에 나눠 질 사람을 정해두세요. 이름 하나면 됩니다.

13. 실행 계획

이 리포트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잘 벌고 잘 만드는 판인데 채우는 자리가 비어 있고, 그 빈자리를 스무 해 동안 흐름이 대신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받침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할 것

첫째, 혼자 지고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드세요. 개수만 세도 됩니다.

둘째, 눕는 시각 알람을 맞추세요. 일어나는 알람 말고요.

셋째,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부탁을 하나 하세요.

이번 달에 할 것

첫째, 목록에서 하나를 실제로 넘기거나 줄이세요.

둘째, 들어온 그날 떼는 비율을 정하고 통장을 하나 더 만드세요.

셋째, 배우는 자리를 하나 등록하세요. 내용보다 정기적으로 나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기 검진을 예약하세요.

올해 안에 할 것

첫째, 일을 쉬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줄기 하나를 시작하세요. 규모는 작아도 됩니다.

둘째,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과 일하는 구조를 하나 만드세요.

셋째, 매주 같은 시각에 반복되는 쉼을 자리 잡으세요.

넷째, 같이 지는 관계 하나를 만들어두세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더 열심히 하는 것. 이 판에서 열심히는 이미 넘칩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 흙은 앞으로 더 들어옵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 그게 이 판의 가장 오래된 습관이고, 가장 비싼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주는 정해진 답이 아니라 지도에 가깝습니다. 어디가 오르막이고 어디가 내리막인지 미리 아는 것뿐이에요. 오르막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오르막인 줄 알고 오르는 것과 모르고 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홍길동 님은 지금 스무 해짜리 내리막을 다 내려와서 다음 오르막 앞에 서 계십니다. 준비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고른다면

열세 가지를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판에서 가장 값이 큰 것 하나만 고르라면 나눠 질 사람 한 명입니다.

쉬는 것도 배우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지만, 나무가 하나뿐인 이 판에서 제일 오래 비어 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생기면 나머지 열두 가지가 저절로 쉬워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1. 오늘 이 리포트에서 딱 하나만 골라 오늘 안에 하세요. 세 개 고르면 하나도 안 됩니다.
2. 이번 달 안에 이 목록을 다시 펴서 한 줄이라도 지우세요.
3.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리포트를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때 보이는 줄이 지금과 다를 겁니다.

10년 뒤의 당신에게

홍길동 님께

여덟 글자를 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불이 넷이고 물이 없는 판을 보면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을까.

서른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물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무리가 통했고, 그래서 무리가 습관이 됐을 겁니다. 내년부터 그 받침이 바뀝니다. 겁내실 일은 아니고, 다만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는 신호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순이 되면 흐름에 다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십 년은 견디는 십 년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 정리하는 십 년으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벌여둔 것을 줄이고, 나눌 사람을 만들고, 받는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두는 시간이요.

십 년 뒤의 홍길동 님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만들고 계실 겁니다. 그 힘은 이 판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옆에서 같이 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사주는 그때 가장 좋은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판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린 건 물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물이 없는 채로 마흔아홉 해를 지나오셨다는 쪽이었습니다. 받는 법을 배울 자리가 처음부터 비어 있었으니 안 배운 게 아니라 배울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받는 게 어색하시더라도 그건 홍길동 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없던 근육을 지금 쓰기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딱 하나만 골라 오늘 해보세요. 열세 개를 다 하려고 하시면 이 판은 그것마저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리포트가 다루지 않은 것

한 사람의 여덟 글자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썼습니다. 아래는 이 리포트에서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안 봤는지도 알고 계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적어둡니다.

해마다, 달마다 갈리는 흐름

10년 단위 큰 흐름(대운)까지 봤습니다. 그 열 해 안에서 어느 해가 어떻게 갈리는지, 달마다 무엇이 다른지는 이 리포트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 기운을 생활에서 쓰는 법

무엇이 약이고 무엇이 짐인지까지 봤습니다. 그 기운을 어떤 색, 어떤 방향, 어떤 시간대로 불러 쓰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곁에 둘 사람과 거리 둘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는 봤습니다. 어떤 결의 사람이 이 사주의 빈 곳을 채우고 누구와 부딪히기 쉬운지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

이 리포트는 한 사람의 글자만 봅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함께 일하는 사이든, 두 사람이 어디서 맞물리고 어디서 어긋나는지는 상대의 여덟 글자가 다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manse.onrender.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한 말씀 전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것은 이 리포트를 받으신 메일에 그대로 답장 주시면 추가 비용 없이 답해 드립니다.